

☛ 홈 > 뉴스 > 전국 > 경북

POSTECH 한세광 교수,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

2015년 11월 26일 (목) 15:44:22

강신윤 기자 ✉ max0709@hanmail.net

(포항=국제뉴스) 강신윤 기자 = POSTECH(포항공과대학, 총장 김도연)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(46)는 ㈜신풍제약(대표이사 유제만)과 공동으로 개발한 수술 후 유착 방지제 ‘메디커튼®’ 기술로 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(최우수상)을 수상했다.

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관련 전시회인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한세광 교수팀은 생체 고분자 히알루론산과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를 이용한 수술 후 유착 방지제 ‘메디커튼®’에 대한 원천기술을 발표,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.



특히, 이번 수상은 기업체와 대학의 공동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 사례로써 바이오.제약 산업계의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개복수술, 복강경 수술, 자궁경 수술 등 여러 종류의 수술 후에 동반되는 염증 및 혈액응고로 인해 피부나 막 등이 달라붙는 유착현상은 소장폐색, 장천공, 만성골반증 등의 각종 후유증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.

이런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유착 방지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데, 한세광 교수팀이 개발한 ‘메디커튼®’은 히알루론산과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를 주성분으로 이용해 상처치유와 체내 조직 유착 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 많은 관심을 모은바 있다.

‘메디커튼®’의 우수성과 안전성은 동물실험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순조로운 매출로 수년 내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메디커튼® 특허는 미국, 일본, 호주, 캐나다, 중국, 유럽 등에도 등록되었으며, 약 4조 5천억원 규모의 유착방지제 세계 시장에서 메디커튼®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또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CE 인증마크를 획득한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18개국에 메디커튼®을 수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.

한세광 교수팀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(주)신풍제약과 공동연구를 통해 생체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나노의약 개발에 힘써 왔으며 '메디커튼®'은 포스텍과 신풍제약의 산학협력을 통해 상업화의 결실을 맺은 첫 제품이다.

이외에도 현재 (주)신풍제약과 함께 관절윤활 및 성형수술용 히알루론산 하이드로젤 필러를 개발하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18년에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한세광 교수는 "포스텍-신풍제약의 상호 보완적인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다양한 의약품 개발에 나설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© 국제뉴스(<http://www.gukje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